빅데정 대본

1P 안녕하십니까 ~ 주제로 발표를 맡은 ~ 입니다.

2p 목차입니다 ~ 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3p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 통계청에 의하면,

고령화율인 노년층 인구 비율은 2017년 14.21%, 올해 223년 5 월 18.4에 달하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4p 전국민 5명중 1명이 노인인 이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복지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가 사안이 되었고, 정부와 지자체는 기초연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요양시설과 같은 노인복지 정책을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될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입니다.

5p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란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와는 엄연히 다름. 대상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는데, 오늘 발표내내 말씀 드릴 대상은 1~3등급 노인들과, 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노인 복지시설입니다. 보다 절실한 사람들 분석대상 삼음.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릴 ‘보험대상자’ 단어는 모두 이 장기보험제도의 1~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이고, ‘노인복지시설' 단어는 모두 이 대상들만 누릴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다시 발표로 돌아와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다양한 노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6p 하지만 여러 선행연구 따르면 수도권 과밀화 문제처럼 지역 간 노인 복지 불평등이 점차 삼회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7p 실제 선행 연구들은 첫째, 도심지와 농어촌 지역간의 불균형을, 둘째 노인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불균형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두가지 유형 모두 노인 복지시설이 불균형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 그 핵심.

8p 바로 이지점에서 오늘 분석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인 질문 2가지를 던지겠습니다.

첫번째 ~

두번째, 지역별로 불균형하다면, ~

입니다.

9p 여기까지 봐서는 ‘선행연구들과 뭐가 다르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연구들에선 전국을 기준으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요, 저희는 실제 노인복지의 손길이 절실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 지역들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즉, 기존에 도심지 vs 농어촌, 수도권 vs 비수도권이라는 분석 틀에서 벗어나, 비도심 지역 내에서 '진짜' 수요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10p 지금까지 서론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고, 이제는 실제 데이터를 다룬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소개입니다. 해당 데이터들 전부 저희 발표 기준에 맞춰서 전처리한 채로 이용했는데요. 대부분 kosis 통계포털에서 가져왔고, 핵심적으로 다룰 변수는 여기 1번 보험대상자 수와 3번 노인복지시설 수입니다. 그 외에도 노인복지 자원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정원, 시군구별 예산, 의료기관 수가 있고, 나중에 말씀드릴 회의록 발언 텍스트 데이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p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정치학연구 방법론을 들으셨을텐데 독립변수 종속변수

개념은 아 실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x축인 보험대 상자 수가 독립변수이고, y축인 노인복지사설 수가 종속변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헌대상자 수가 늘어나면 이들을 위한 노인

복지시설 수가 늘어난다는 양의 상관관계를 알 수있죠.

잠시 간단하게 이 회귀 모형의 통계값을 보시면, 기울기는 양수로 양의 상관관계 보여주고 있고, P-value의 경우, 일반적으로 0.05보다 작으면 이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0.01보다 작으니 유의한 것이죠.

이 회귀그래프에서 모든 파란점들이 회귀 선에 전부 가깝게 모여 있다면, 선행연구들에서 그토록 주장하던 노인복지 불균형 문제는, 어쩌면 옆나라 이야기였을 겁니다.

12p 하지만 자체 산식을 통해 보험대상자 1,000명당 노인복지 시설 수를 정렬해봤을때, 그 격차는 결코 작지 않았는데요. 이 박스플롯의 전체 범위 자체가 이 가운데 박스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음을 말합니다.

13p 여기 시흥시에서는~ 데 반해,

강원도 고성에서는~.

즉, 진국적으로 보험 대상자들에대한 시설 분포는 매우 불균형한 것입니다

이 불균형한 형국 속에서 유독 그 정도가 두드러지는 상위 5개 지역 TOP5와 하위 5개 지역 Bottom 5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곳들은 전국에서 노인복지에대한 실재 수요가 가장 과대공급되고 가장 과소공급 되는 지역들인데요.

14p 실제로 이 지역들만의 공통되는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지 분석해보았습니다. 그 기준점으로

. 노인복지 자원에대해 자체적으로 전처리한 정량지표를 가져왔는데요. 노인복지에서 절실하게 구되는 수요가 가장 과대공급 • 과소공급되는 만큼, 다른 노인 복지자원들에서도 뚜렷한 특징을 보여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15p 크게 3가지,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정원 , 노인 복지 예산을 분석했는데요. 빨간 줄이 Top 5지역, 파란줄이 Bottom5 지역들입니다.

16p 먼저 < 각 지역의 전체노인 1000명 대비 의료기관 수> 입니다 노년층 1,000명이 이용 가능한 병원, 보건소, 약국 개수로 Bottom5 지역 모두 7개 이하로 나타나는데 비해 Top5 지역들은 이를 상회하죠.

17p 다음은 <보험대상인구 대비 장기요양시설 정원>입니다. 보험대상자 1명을 기준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몇자리가 남는지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보시면, Top5 전부 1.0이 넘는 것을 보아 모든 보험대상자들을 수용할 수 있지만, Bottom5는 시설 정원보다 보험대상자가 2배는 많다는 뜻입니다. 경쟁률이 1대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8p 다음은 <각 지역의 예산>입니다. 여기 boxplot에서 금액 단위가 억 원입니다. (간격이 조금만 차이나도 몇십억이 왔다갔다하죠) Top 5 지역은 800~2,000억 인 반면에 Bottom5 지역은 지역은 약속이라도 한듯이 전부 700억 이하인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 또한 큰 차이가 나죠.

19p 지금까지를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정원, 예산 지표 3가지 모두에서 TOP5 지역과 Bottom5 지역 간의 격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과소공급• 과대공급 되는 지역들에서 다른 노인복지자원 또한 유사한 경향성 나타나는 것이죠, 즉, 핵심적인 수요와 포괄적인 자원에서 모두 심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분석한 것들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보험대상자 1,000명당 노인 복지시설에대한 비율과 회귀분석을 통해 전국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불균형하게 분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정도가 심한 Top 5. Bott 5 지역들의 노인복지 자원에 대해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불균형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20p 이제 결론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Top5 Bot5 지역에 대해 노인복지 자원만 분석한 건 아니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회의록 발언도 토픽 모델링도 했었는데요. (의도생략 ?)

그룹별로, 개개인 별로 돌려봤을 때 모두 본인 상임위나 소위원회 관련 주제만 다뤄서 별다른 인사이트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21p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처음 제시한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째, ~

둘째~

22p (시사점) 이 2가지 답을 통해 저희는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불균형한 지역들의 '자원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하는 바입니다.

23p 다행히 현재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성 역시 장기요양기본계획과 저출산 고령화 기분계획을 통해 노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24p ( 예산x)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5년간 노인 요양시설 확충 예산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성과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삭감 폭이 눈에 띄게 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고 있죠..

25 p (마지막) 이처럼 지속적인 노인복지 예산의 삭감은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앞으로 전개되는 노인복지 정책에 보다 현실적인 과심을 가져야한다.

말씀드리며 오늘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교수님과 학우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